

보도시점 2023. 12. 28.(금) 배포 2023. 12. 28.(목)

[2023년 기획재정부 정책 돋보기]

## 원스톱 수출 119, 전국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7개월간 4,672Km 이동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23년 총 733건 수출·수주기업 애로해소 완료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단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그간 온·오프라인 수출애로 해소 플랫폼을 구축하고 총 733건의 수출·수주기업의 애로 해소를 완료하여 우리 경제의 수출 회복세를 지원하였다.

기업이 여러 부처·기관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23.2월 출범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범부처 합동 기구\*로, 그간 온라인 수출애로 해소 창구 구축([www.export119.go.kr](http://www.export119.go.kr)), 국가·지방산단 수출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원스톱 수출 119 가동('23.6월~), 전시회와 연계한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과의 접점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977건의 애로를 발굴하였으며 121건의 제도개선을 포함, 총 733건의 수출·수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였다.

\*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 조달청, 관세청

\*\* 원스톱 수출119 14회(반월·시화, 오송, 구미, 옥천, 충주, 광주, 안동, 원주, 춘천 등)

업종별 협·단체 릴레이 간담회 12회(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드론, 관광, 에듀테크 등)

전시회 연계 수출 상담회 9회(메타버스 박람회, 로보월드 수출상담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등)

주요 애로해소 사항으로, ①수출용 자동차를 국내항간 운송할 수 있는 자동차 운반선의 선령제한 규제 완화, 반도체 제조설비 수입에 꼭 필요한 운반기구 등에 대해 재수출 면세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물류·통관 부담을 낮췄다. ②수출기업의 마케팅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 이용권(바우처) 사용 범위를 무역보험·보증 등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③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애로와 관련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 한국무역협

회와 함께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및 1:1 상담회를 개최(10.23일)하여 기업들의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 제고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④지방산단 입주기업을 위한 (가칭)지방산단협의체를 운영하여 지방 수출기업들이 산업여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기업의 수주 및 판로개척 애로 해소도 밀착 지원했다. 한국 기술력에 관심 있는 해외기업·정부 요청 등에 따라 우리 기업과 해외 구매자(바이어)를 매칭 지원해 주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기업의 수주 관련 공통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해외수주기업 1:1 방문면담\*\*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성과\*\*\*를 이끌어 냈다. 국제기구 협력 및 기업 면담을 통한 유망 사업(프로젝트)을 발굴하고, 주한 대사관을 중심으로 외교 채널을 구축하여 비자, 미수금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업계 애로 등 쟁점(이슈)별 애로 해소를 적시 지원하였다.

\* (4월) 공항관련 기술기업-파나마 공항 (6월) 전기이륜차-과테말라 수입기업

\*\* 수주정보 비밀유지 위해 간담회 형식이 아닌 1:1 방문 형식으로 진행(11회)

\*\*\* (제도개선) 수은 특별계정 조성, 해외법인 대여금 손실 인정, 예외적 여권 허가 등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24년에도 수출기업을 찾아가는 현장 행보 운영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애로 해소 지원, 판로 개척, 수주 밀착지원 등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금융재정지원팀	책임자	과 장	박선영 (02-6000-5785)
		담당자	사무관	한유빈 (youbinhan@korea.kr)

